철학아카데미《향연》과《에로티즘》－제3강
2016. 01. 20(수) 17:00~19:00
김인곤 (정암학당)

플라톤의《향연》-(3)

5. 소크라테스의 에로스론

에로스란? (에로스 자체에 대한 정의)

⑴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좋은 것)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므로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에로스는 추하지도 않다.

⑵에로스는 신이 아니라 다이몬의 일종이다.

다이몬은 신과 인간의 중개자이다.

에로스는 포로스(풍요)와 페니아(곤궁)의 아들이다.

⑶에로스는 애지자(philosophos)다.

에로스는 지혜와 무지 사이에 있다.

아름다운 것을 욕망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결여하고 있다는 뜻이고 ㉡자신이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지 안다는 뜻이다(무지의 지))[1].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이고,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욕망하므로 다이몬으로서의 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을 욕망하는 목적은?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니까.

좋은 것과 행복에의 욕망이 가장 크고 모두를 현혹하는 에로스다.

에로스가 하는 일(에로스의 기능)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에로스가 인간에게서(넓게는 동물에게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좋은 것)을 늘 소유하기 위해 하는 일

"몸에 있어서 그리고 영혼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는 것"(206b)

출산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에로스)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교합과 새끼 양육에

1) "뭔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욕망하지 않는다."(204a)

목숨을 거는 것을 보라. 모든 생명체의 생식과 성장 활동 일반이 출산활동(아름다운 것과 만나 아름다운 것을 낳는)이다. 에로스는 모든 동물을 매순간 살아있게 해 주는 능동적 힘이다.

아름다운 것 = 생명을 지속시켜 주는 것, 생명 자체, 생명의 빛(원리), 지성적 요소
(가장 아름다운 것 = 지혜)

임신과 출산 = 신적인 것, 가사자인 생물 안에 있는 불사적인 것(206c, 207a)
조화로운 것 안에서(아름다운 것 = 조화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여 이미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자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격렬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진 자가 자기를 큰 산고에서 풀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206e)

에로스 = 불사를 향한 욕망
임신과 출산은 사멸하는 존재(생명)가 삶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방식
= 낡은 것을 새로운(닮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208b).

영혼의 임신과 출산 = 사리분별(지혜)과 덕들

인간의 경우,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걸며 명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성을 길이 남기려는 열망(불사의 열망) 때문이다.

임신한 상태에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 교합(교류)하고 출산하여 함께 양육한다. 이들은 육신의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덕)을 공유하고 더 확고한 우애를 얻는다. 더 아름답고 더 불사적인 아이들(덕들) 공유하기 때문에.

불사의 명성을 가져다주는 영혼의 자식들 = 용기(아킬레스, 알키스테스)
불후의 명작(호메로스, 헤시오도스의 작품들)
입법(솔론, 뤼쿠르고스)
교육에 의한 덕의 전수

불멸의 아름다움을 향한 영혼의 상승
(정신적 출산을 도모하는 자들의 지적 성숙과정)

개별적 몸 → 몸 일반 → 행위[기술적 행위 < 도덕적 행위] → 법과 제도 → 학문(개별학문) → 철학(아름다움 자체)

특정한 외모(옷차림, 색깔) → 형태, 모양, 색깔의 조화 → 덕[기능적 덕 < 품성의 덕(절제)] → 사회적 덕(정의) → 지식(디아노이아 < 누스) → 지혜(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앎)

ⓐ 진(존재 : 진리) - 선(좋음 : 유용성) - 미(아름다움 : 쾌락)의 삼위일체 관계
ⓑ위로 올라 갈수록 아름다움의 지속성은 증가하며, 좋음의 포괄성은 커진다.
ⓒ하급의 아름다움은 상급의 아름다움에 지배를 받는다.

모양, 색깔, 맛 등 감각적인 것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감각에 쾌(快)를 불러일으킨다. 행위의 차원에서 쾌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들은 어떤 일을 아주 멋지게 이루어내는 행위들, 이른바 기술적인 행위들이다. 이를 기능적 덕(아레테, 목공술, 요리술, 등)라고 한다. 품성의 덕(도덕적인 덕)이란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화장하고 옷 잘 입고, 치장해서 겉보기(외모)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몸 전체가 건강한 상태가 더 아름다운 것이다. 몸 전체가 건강해야 외모의 아름다움도 오래가고 유지가 된다. 몸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건강과 떨어져 있지 않다. 아름다운 몸(몸짱)을 만들려면 절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절제는 지성의 컨트롤에 몸과 마음이 길들여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걸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한다. 절제의 덕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건강하게) 만들뿐 아니라 타자들과 좋은 관계(윤리 도덕 정의)를 형성하는 힘(품성의 아레테)의 바탕이 된다.

좋음의 포괄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에로스에서 이타적인 에로스로 확장됨을 뜻한다. 나한테만 좋은 것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아가서 공동체와 인류, 자연 전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선(아름다움 자체)의 이데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이다. 《국가》에서 철인왕이 그런 앎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이해하는 에로스의 능동적 힘(지성적 요소=아름다움의 요소)은 생물학적인 현상에서부터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즉 지상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몸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과 뗄 수 없고, 개인의 정신 건강은 사회의 건강(윤리 도덕, 정의)과 떼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다움의 상승은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플라톤이 이해하는 인간과 사회, 자연과 존재의 원리다. 우리 속에 있는 에로스의 능동적 힘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자 한다. 자신의 고향이 그곳이니까.

<향연>에서 소크라테스의 에로스론은 인간이 인간과 만나서 어떻게 몸과 마음을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단면도와 같다. 동성애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에로스가 성적인 에로스를 포함하면서도 단순히 생물학적 생산관계(자식의 생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고차원인 아름다움(지성적 아름다움)의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야 생물학적인 생산(육체에 속하는 것)도 온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다.